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서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현장 재난 대응력 높여

김도윤 기자 | 승인 2026.11.26 19:57

> 초기 화재 진압부터 응급처치까지 현장 체험 중심 교육으로 훈련 실효성 제고
> 김철상 지사장 "내방객 많은 공공청사 특성 고려해 철저한 소방계획·지속 훈련 이어갈 것"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철상)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소방서(서장 채덕현)와 함께 화재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제 재난 상황이 청사 내에서 발생한 것을 가정해 진행됐다.

형식적인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신속한 인명 대피훈련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 등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훈련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 대처와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특히 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소화기 안전핀 제거부터 분사까지 올바른 사용 절차를 직접 실습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가슴압박 방법과 심폐소생술 요령을 몸소 체험하며 위기 대처 역량을 다졌다.

채덕현 서부소방서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공사 직원들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의식과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이어가며 안전한 지역사회와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상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은 “농업인과 민원인 등 상시 내방객이 많은 공공청사의 특성상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진행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이번 합동훈련을 계기로 청사 내 소방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 점검과 주기적인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해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윤 기자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